

산키로

1931년에 세워진 산키로는 한때 모지 항구 요정 중 톱 3에 꼽힌 고급 요정입니다. 언덕 중턱에 있는 목조 3층 구조의 큰 건물에서는 간몬 해협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식사만 하는 곳이 아니라 예술가와 연예인, 사교계 명사, 일본 내 유수의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임원 등이 모이는 사교 살롱이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목조 건축

산키로는 연면적이 총 $1,200m^2$ 이상이고, 방의 개수는 20개 이상으로 현존하는 요정 건물로는 규슈에서 손꼽히는 규모입니다. 2층에 있는 $116m^2$ 의 연회장에는 양들리에가 빛나고, 정면에는 $29m^2$ 의 무대가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아름답게 세공된 창문과 교창인데, 모두 자연의 풍경을 표현한 디자인입니다. 윤곽이 후지산을 닮은 ‘후지 화두창’도 그중 하나입니다. 또한, ‘덴쿠에노카이단(천공의 계단)’이라고 하는 계단 양쪽에는 마쓰(소나무), 야마(산), 쓰키(달), 구모(구름)라는 이름이 붙은 창이 있습니다.

1931년 4월 5일, 현지 신문 ‘모지 신보’의 기자는 신구가 융합된 우아하고 대담한 건물을 극찬하며, ‘전망이 훌륭하다. 기타큐슈에서는 비할 데 없는 훌륭한 외관을 가진 요정’이라고 썼습니다.

산키로를 당대에 일궈낸 여성 사업가: 미야케 아사

산키로는 미야케 아사(1854~1937)라는 여성이 당대에 일궈냈습니다. 근면하고 진취적인 기질이 풍부했던 아사는 젊은 시절, 교토의 기온에서 예기의 견습생 생활을 하며, 전통문화와 전통 예능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제약받는 것을 부당하다고 느껴 아사는 견습생 생활에서 도망쳐 음식점을 경영하겠다는 야망을 이루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모지까지 560km를 여행했고, 1906년에는 ‘산키로’를 창업했습니다.

아사가 산키로를 연 것은 마침 모지의 항구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산키로는 새로이 부유층이 된 상인들에게 세련된 식사와 접대를 제공했습니다. 아사의 신생 사업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교토를 떠난 지 25년도 지나지 않아 아사는 산키로를 지역의 명물로 키워냈습니다. 1937년에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기업가 정신과 예술적 유산은 오늘날에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유층과 유명 인사들의 놀이터

아사에게는 자식이 없었지만, 후계자인 이세코(1899~1986)와 다메지로(1895~1988)의 아래에서 산키로는 번영을 이어갔습니다. 호화로운 연회석과 함께 노가쿠(무로마치 시대부터 이어져 온 일본을 대표하는 무대 예술), 무용, 나가우타(에도 시대에 가부키의 음악으로서 성립, 발전한 샤미센 음악) 등의 무대 예술을 공연하여 유명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산키로만을 위해 모지를 찾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산키로는 화려한 시대를 지나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이후에는 쇠퇴해 갔으며 1955년에 폐업하여 아사 손자의 사저가 되었습니다. 2004년 아사의 손자가 죽은 후에 건물을 철거되는 듯했으나 모지 주민들이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1년 이내에 1만 6,000명분의 서명과 1,900만 엔을 모아 건물을 사들여 모지시에 기증했습니다. 현재, 산키로 건물은 간몬 지역의 명물인 복요리 전문점 '산키로 사료 KAITO'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1층에 있는 전시실에서는 산키로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